

2

소비자피해 사례

【사례1】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중문 재시공 요구

- A씨는 2016. 5. 아파트 건설사와 중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1,800,000원을 지급함.
- 2019. 1. 사전 점검 시 시공된 중문을 보니 계약내용과 다르게 여닫이 형태로 제작되어 건설사에게 재시공을 요구함.

【사례2】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디자인과 다른 식탁세트 환급 요구

- B씨는 2016. 11.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건설사와 식탁세트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,000,000원을 지급함.
- 2019. 5. 입주 후 확인해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식탁과 디자인이 다르고 의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, 건설사에게 계약이행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함.

【사례3】 시공 전 방법 방충망 계약해제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

- C씨는 2018. 9.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방법 방충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474,000원을 지급함.
- 2021. 4. 동종의 방충망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, 사업자는 총 시공금액의 50%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함.

【사례4】 제조일자가 상당기간 경과한 냉장고 계약해제 요구

- D씨는 2020. 4. 아파트 건설사와 냉장고, 김치냉장고 구입계약(비대면 방식)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15,000원을 지급함.
- 2020. 6. 신청인이 공급받을 김치냉장고가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함.

【사례5】 품질이 불량한 시스템에어컨 배상 요구

- E씨는 2018. 7.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을 하고 6,100,000원을 지급함.
- 2021. 4. 아파트 입주 후 에어컨의 소음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.